

학교 폭력으로 얼룩진 배구 코트

이재영·이다영 자매 이어 송명근·심경섭도 학폭 시인 소속팀 잔여경기 출장금지 검토... "상황 심각하게 인식" 한국배구연맹 "선수 처벌할 근거 마땅치 않아 고민 중"

배구 코트를 향해 쏟아졌던 환호가 일순간에 날선 비판으로 바뀌었다. 겨울철 인기 실내 스포츠 입지를 굳혀가던 한국 프로배구 V리그가 '학교 폭력(학폭) 논란'으로 휘청이고 있다.

학교 폭력이 프로배구에서 공론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의 소속팀은 징계 등 후속 대책을 고심 중이다. 다른 구단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은 현재 팀 소속을 떠난 상태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고, 둘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해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인기와 비례해 이재영-이다영 자매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또 다른 피해자도 나온 터라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남자부에서도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졌다.

OK금융그룹 레프트 송명근과 심경섭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고교 시절과 중학생 때 A씨를 폭행했다고 시인했다.

OK금융그룹은 포털사이트에 둘을 향한 폭로가 나오자,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고 입장문을 발표해 사과했다.

구단은 "가해자가 A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나도 사람인지라 이런 상황이 마음 편하지 않다. 단순히 괴롭히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점 본인들도 아셨으면 한다"며 "말도 안되는 입장문과 사과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배구 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인터넷 여론은 가해 선수들의 징계 수위에 쏠려 있다.

흥국생명과 OK금융그룹 구단 모두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에 관한 고민은 깊다.

흥국생명 구단도 이재영과 이다영이 올 시즌 남은 경기에 출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잔여 경기 출장 금지' 처분이 나온다면, 외부에서 징계의 실효성을 지적할 수도 있다. 구단은 징계와 재발 방지, 선수 보호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터라,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렵다.

OK금융그룹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종목 내 전례가 없어 처벌

기준도 불명확하다. 한국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는 2018년 1차 지명 신인 안우진을 향해 학교 폭력 폭로가 이어지자, 정규시즌 50경기 출장 정지의 자체 징계를 했다.

아마야구를 이끄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안우진에게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며 사실상 국가대표로 뺄 수 없게 했다.

프로야구를 관장하는 KBO는 아마추어 시절 벌어진 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안우진을 징계하지 않았다.

한국배구연맹(KOVO)도 이재영, 이다영, 송명근, 심경섭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고민한다. 결국, 시선은 가해 선수를 보유한 소속팀에 쏠릴 수밖에 없다.

당장 흥국생명은 16일, OK금융그룹은 18일에 홈경기를 치른다. 무척 신중해야 할 사안이지만, 대처가 너무 늦으면 팀 내 다른 선수들도 달갑지 않은 시선에 노출된다. 연합뉴스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13일(현지시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4라운드 경기 도중 부상으로 쓰러진 가운데 해리 케인 등 동료들이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슈팅 '0개'... 팀도 맨시티에 0-3 패

토트넘 9위로 내려앉아 최근 5경기 1승 4패 부진

지친 손흥민의 발끝은 무뎠고, 토트넘은 출전 끝에 선두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에 무득점 완패했다.

토트넘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일카이 칸도안에게 멀티골을 내준 끝에 0-3으로 졌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었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정규리그 2경기 연속골이자 리그 14호 골, 공식

전 18호 골을 넣지 못했다.

10승 6무 7패가 된 토트넘은 승점 36점으로 9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매우 부진하다. 토트넘은 또 지난 11일 에버턴과의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16강전 패배에 이어 공식전 2연패를 기록했다.

반면 맨시티는 정규리그 10연승, 1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승점 53·16승 5무 2패)를 굳건히 했다.

토트넘은 이날 기세 싸움에서 맨시티에 완전히 밀리면서 손흥민은 왼쪽 공격수뿐 아니라 측면 수비수 역할까지 해야 했고, 결국 단 한 차례의 슈팅도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제주Utd, 폴란드 특급 유망주 영입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폴란드 특급 유망주' 오스카 자와다(25·사진)를 영입했다. 제주는 2021시즌 공격력 강화를 위해 오스카 자와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스카 자와다는 폴란드 각 연령별 대표팀(U-17, U-19, U-21)을 모두 거친 스트라이커다. 2012년 독일 분데스리가 VfL 볼프스부르크 유스팀에 입단한 이후 U-19팀과 2군팀을 오가며 활약했다. U-19팀에서는 총 44경기에 출전해 35골 3도움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다.

그는 2020/2021시즌에는 라코프 첵스토호바(폴란드) 유니폼을 입었다. 7경기 1골을 기록한 오스카 자와다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제주행을 선택했다.

제주는 오스카 자와다가 192cm,



87kg의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포스트플레이와 제공권 싸움에 강점을 보인다고 했다.

오스카 자와다는 "제주라는 좋은 팀에 합류해서 정말 기쁘다. 제주에서 내가 해줘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표는 이미 설정했다. 팬들을 빨리 찾아 뵙고 그 부분을 증명하고 싶다"는 입단 소감을 전했다. 전선희기자

양현종, 최대 185만달러 텍사스 마이너리그 계약

왼손 투수 양현종(33)이 꿈의 무대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단점 기회를 마침내 잡았다.

MLB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은 양현종, 포수 겸 1루수 존 힉스, 내야수 브룩 홀트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고 이들을 스프링캠프에 초청한다고 13일(한국시간) 공식 발표했다.

MLB닷컴은 양현종의 계약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양현종은 '신분'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1년짜리 스플릿 계약을 했다. MLB닷컴은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 입성하면 보장 연봉 130만달러(약 14억4000만원)를 받고, 성적에 따라 보너스 55만달러(약 6억원)를 추가로 받아 최대 185만달러(약 20억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양현종은 18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텍사스 구단의 투·포수 훈련에 참가해 시범경기를 거쳐 빅리그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찬스를 얻었다.

양현종은 이날 텍사스 구단이 함께 발표한 40인 로스터 명단 중 투수 23명엔 포함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경기보다 선수간 펀치가 불거진 NHL 13일(한국 시간) 미국 글렌데일에서 열린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서 경기가 과열되면서 양팀 선수들 주먹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도 문화동아리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도 내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모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아리

- 동아리 구성원은 전원 제주도 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것
- 비정규직 노동자가 1인 이상 포함 될 것
- 동아리의 최소 인원은 5인 이상일 것

지원배제 대상

- 도내 유사한 지원을 받는 동아리
- 특정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종교단체, 정당 등의 이익단체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2. 지원분야 : 문화·예술분야

구분	예시
공연예술	노래, 댄스, 악기연주, 댄스댄스, 거리공연 등
시각예술	서양화, 종이접기, 만화, 수예, 북아트 등
영상예술	영화평론, 영화제작, 사진촬영, 영상촬영 등
전통예술	풍물, 민요, 한국무용, 사물놀이, 사군자, 한지공예 등

* 예술의 정의(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 :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분야

3. 지원내용 : 동아리별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역
활동비 지원	- 활동에 필요한 홍보비 (리플릿, 자료집, 홍보물 제작 등), 재료비 - 대관비(공간 및 장비 임차), 진행비(운송비) 등 지원
강사비 지원	- 동아리 교육을 위한 강사비 지원 * 시간당 70,000원 지원

4. 공모일정

- 2021년 02월 15일(월) ~ 03월 02일(화) : 접수기간
- 2021년 03월 03일(수) ~ 03월 05일(금) : 심사기간
- 2021년 03월 08일(월) : 심사결과발표

5.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wsc.org>)에서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jejuwsc@naver.com
- * 접수 마감일(2021년 03월 02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심사함
-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접수는 진행하지 않음

6. 선정기준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동아리의 타당성, 발전가능성 및 예산 활용계획,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도 등을 심의하여 선정

7. 기타

- 사업설명회 :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신청서 등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동아리별 지원 금액 및 지원 동아리의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취지에 적합한 동아리가 없는 경우 재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공모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8. 문의

-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문화동아리 지원 사업 담당자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노형동,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 전화 : (064)753-5667 - 이메일 : jejuwsc@naver.com